

프랑스 <마카이요프스키 성경(Maciejowski Bible)>의 중세복식 표현에 관한 연구

김 희 정[†]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A Study on the Middle Age Costume Expression of France <Maciejowski Bible>

Hee-J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2007. 8. 2. 접수 : 2008. 4. 29. 채택)

Abstract

In picture bible, the picture is helpful for showing story more vividly and specifically and it is helpful for finding the meaning of bible hidden behind familiarity. It plays the role of the most powerful testimony and expression, with which human provides himself.

The purpose of study was to grasp the relation among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middle age, human's characteristic and symbolic color b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stume expressed in Maciejowski Bible, which is a picture bible of the middle age and observing type, color and decoration of costume.

Among 46 folios organizing Maciejowski Bible, 129 pictures explaining the Book of Genesis, the Book of Exodus, the Book of Leviticus, the Book of Numbers, the Book of Deuteronomy, the Book of Joshua and the Book of Judges, which belong to the former 400 years of the old Testament, were analyzed for people's costumes.

The pictures shown in Maciejowski Bible portrays object, costume and behavior on the background of France of the 13th century so we can find out the precious natures of middle age's costume, weapon and armor. Especially, the portrait about finger armor of chain mail attached in hauberk becomes the outstanding evidence that can encroach the discussion over whether it was used in the end of 1300s.

Regarding costumes of main characters, they wore chemise and braies as underwear, wore tunic or cotte having various lengths from the length reaching knee to the length reaching ground as basic costume and wore mantle with different-colored lining and hose with various colors. In the war picture, we can see hauberk made with chain mail and cyclas with long slit, which was worn over hauberk, barrel helmet, norman helmet and steel school cap. Regarding cap, man usually wore coif, beret, shade-shaped cap, straw hat and woman wore the decoration using veil and hairlace and used the method to wrap whole hair with net.

As the colors used in the costume of the picture bible, scarlet, blue, green and brown were usually used in order. They usually wore costumes decorated splendidly with the colors having high brightness and chroma.

Key words: Maciejowski bible(마카이요프스키 성경), picture bible(그림 성경), costume of the middle age(중세복식).

이 논문은 2008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E-mail : heejee05@hanmail.net

I. 서론

기독교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문화,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특히 기독교 미술 부분이 연관성을 갖지 않은 시대는 없었으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종교와 예술 사이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존재해왔다.

기독교 미술은 우상숭배라는 비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이라는 좋은 취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해 왔으나, 이는 숭배나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의 표현이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소개하는 일인 것이다. 중세의 미술은 기독교 미술을 대표하는 하나의 전형이 되었고, 수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문화유산은 경이로움과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상징으로 풀이되던 중세 기독교 사상에서의 상징은 기독교적 의미가 부여된 존재론적 사물기호와 약속에 의거하는 기호로서의 상징으로 구분되고 있다. 실제 중세미술에 있어서 그림은 말보다는 감각에 의해 인식되어 그림이 육체의 세계를 넘어 정신세계에 이를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¹⁾.

영어의 바이블(The Bible)은 라틴어의 비블리아(Biblia)에서 나온 말이며 이 라틴어는 그리스어 'ta biblia'에서 나왔는데, 이는 그리스어의 'biblos'의 복수형으로 '책'을 뜻한다. 비블로스란 말은 알파벳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그리스 세계에도 전달되면서 책을 의미하게 되어, 후에 '책 중의 책'이라는 뜻에서 <성경>을 가리키게 되었다²⁾.

구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바벨론에게 멸망 당해 포로로 잡혀다가 일부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B.C. 400년경까지 1,000년 이상에 걸쳐서 서술된 히브리 민족에 대한 기록으로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되며, 실제적으로 시간과 장소가 존재하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과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로 본다³⁾.

성경을 통해 사람은 신과 대화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문자와 더불어 그림으로 이해를 돕는 그림 성경은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이러한 성경은 기록된 당시의 복식관련 자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과 문화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연구 방법은 중세의 그림 성경인 <마카이요프스키 성경(Maciejowski Bible)>⁴⁾에 표현된 복식을 인물별로 캡춰하여 복식 특성을 파악하고 문헌 조사를 통해 색상의 종교적 상징성을 알아보는 것이며, 연구 범위는 <마카이요프스키 성경>을 구성하는 전체 46장(folio)중에서 구약의 전기 400년에 해당하는 창세기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사사기를 설명하는 129장면을 대상으로 중심인물의 복식을 1차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은 중세의 그림 성경을 통해 표현된 당시 복식이 사회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등장인물의 특징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매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복식의 종류, 색상, 장식성 등을 관찰함으로써 중세의 시대적 배경과 인물의 특성, 상징색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II. <마카이요프스키 성경(Maciejowski Bible)> 이란

<마카이요프스키 성경>은 프랑스 루이(Louis) 9세(1214~1270)의 첫 번째 십자군 원정을 위한 각오로 유대인 성경에 대한 그의 뜻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7명의 알려지지 않은 프랑스 숙련공에 의해 1244년에 제작된 구약을 설명하는 채색 사본으로서 모두 283장면을 포함한 46장(folio)으로 구성된다. 이 그림 성경은 뉴욕 pierpont morgan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마카이요프스키'는 폴란드식 발음이며, 'Morgan Bible of Louis IX', the 'Book of Kings', the 'Crusader Bible', the 'Maciejowski Bible', 'The Morgan Bible'로도 불린다⁵⁾.

루이 9세는 프랑스 카페왕조의 왕으로 성왕(聖王)

1) 에케하르트 케멀링 편,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이한순 외 역 (서울: 사계절, 1997), p. 23.

2) 김진영, "기독교미술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24.

3) The New Encyclopedia Vol. 2 (Chicago: Britannica Inc, 1988), p. 895.

4) <http://www.medievaltymes.com>

5) <http://www.medievaltymes.com>

이라는 별칭을 지니며, 정의에 입각한 평화, 덕과 정치의 일치를 추구한 왕이다. 중세 프랑스의 집권적 왕권을 완성하였으며, 십자군원정 도중 사망하였으나 이 시기에 프랑스는 서유럽의 중심이 되었다.

이 책은 처음 만들었을 때 말씀이 쓰여 있지 않은 형태로 페이지마다 일관된 시각적인 리듬으로 편성된 회화만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야기 전개의 흐름으로 성경을 소개하는 보기 드문 중세의 성경 그림책이다.

13세기는 스테인드글라스와 화려한 필사본 삽화의 시대였고, 필사본 삽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원했기 때문에 번성하였는데, 풍부한 금박과 다양한 색채로 이루어져 새로운 호화로움을 갖고 있다. 섬세한 선, 우아한 인물, 3차원성을 재현하려는 시도 등은 이 시기를 아름다운 책을 생산하는 정점의 시기로 만들었다⁶⁾.

필사본은 글자와 이미지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두루마리 형식이 아니라 낱장들을 단단하게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표지에 붙여 장정한 것으로 최초의 책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필사본들을 채색 필사본(illuminated manuscript)이라고 부른다⁷⁾.

필사본 성서의 세밀화 장식은 건축과 함께 두드러지는 예술적 업적으로 꼽힌다. 암흑시대 수도사들은 성직자이면서 동시에 교사, 예술가였는데, 초기의 채색 사본들은 대개 이들에 의해서 제작되었으며, 작품의 주된 목적은 성서의 내용과 그 의미와 느낌을 감동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⁸⁾.

〈마카이요프스키 성경〉은 13세기 대부분의 필사본과는 달리 앞, 뒤 양면에 그림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림 그리는 면적을 4개의 사각형의 하부면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그림의 주제는 종종 영역을 가로지르거나 경계를 지나 다음페이지로 계속되기도 한다.

고딕 예술의 걸작인 이 성서는 풍광에 있는 히브리어 경전으로부터 사건들의 아름다운 그림, 13세기 프랑스의 배경과 복식, 기독교 시각으로의 묘사, 그리고 후에 추가된 3개의 글씨체와 5개의 언어(라틴

어, 페르시아어, 아랍, 유대인의 페르시아어, 유대어)로 된 성서 귀절에 의해 둘러싸여 구성되어 있다.

〈마카이요프스키 성경〉의 각 페이지는 390mm×300mm의 크기로 측정되며, 채색 면적은 270mm×230mm 정도이어서 오늘날 전형적인 책의 두 배 크기보다 크다.

또한 그림들은 선악을 예리하게 대조하고, 해를 끼치는 경우 불가피한 대상을 묘사하고 단색 배경에 대하여 움직이는 사람과 사건을 보여준다. 모든 페이지에 표현된 커다란 그림들은 빛나는 금색 배경에 화려한 칼라로 되어 있으며, 한 페이지의 그림은 보통 직사각형 장면에서 반복되는 일정한 인물들과 무질서한 전쟁터를 특색 있게 배열하였다.

〈마카이요프스키 성경〉은 특히 사울(Saul)과 다비드(David) 왕의 삶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독특하게 잔인한 내용을 담은 21개의 큰 전쟁 장면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에서 루이 9세의 십자군원정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283개의 회화에는 13세기의 무기류, 기갑, 의류, 오락, 가구, 정치, 종교적인 연습, 기구 및 무기, 요리, 건축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마카이요프스키 성경〉의 그림들은 이스라엘 성서로서가 아니라 13세기 프랑스 배경으로 사물, 의복,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 중세 복식, 무기 및 갑옷, 생활문화에 관한 귀중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Ⅲ. 〈마카이요프스키 성경(Maciejowski Bible)〉에 표현된 복식의 특징

그림 성경은 믿는 이들에게 진리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을 가져다주기 위함이었다⁹⁾.

따라서 〈마카이요프스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구약의 전기 400년에 해당하는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성경의 의미와 느낌의 정도를 감동적으로 높이기 위해 복식과 장식등 생활문화 전반의 요소를

6) Anne Shaver-Crandell, *중세의 미술*, 김수경 역 (서울: 예경 산업사, 1991), p. 101.

7) 필립, B. 맥스, 월간디자인 편집부 역,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서울: 월간 디자인, 1988), p. 52.

8) 안혜정, “최후의 만찬에 표현된 복식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 20.

9) 웬디 베케트, *웬디수녀의 그림으로 읽는 성경이야기*, 김현우 역 (서울: 예담, 2002), p. 6.

기록될 당시인 13세기의 것으로 표현하였다.

1. <마카이요프스키 성경>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의 복식

이야기 전개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 하느님, 카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롯, 에서, 야곱, 요셉, 벤자민, 모세, 아론, 여호수아, 기드온, 예브다, 삼손, 레위, 보아스 등 19명의 복식을 분석하였다.

<표 1>은 중심인물 복식의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인데, 등장 빈도를 숫자로 표시하였고, 걸, 안감이 다른 색채인 경우 ‘+’를 사용하여 걸감의 색과 안감의 색을 함께 기록하였다.

1) 창세기 하느님의 복식

하느님의 복식은 1, 2, 7장(folio)에서 보이는 8컷을 분석하였는데, 창조의 첫날부터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추방되는 장면까지의 복식으로 파랑색, 주황색 혹은 갈색의 튜닉과 갈색, 파랑색의 맨틀로 표현되었다.

7장(folio)에서 하느님이 불타는 숲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날 때는 올리브색 튜닉에 파랑색 맨틀을 착용했으며,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를 줄 때는 발목길이의 갈색 튜닉 위에 흰색으로 안을 댄 파랑색 맨틀을 둥근 브로치로 여며 착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머리 주변에는 성자와 황제의 일족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권력을 표시하는 후광(Halo) 혹은 님부스(nimbus)¹⁰⁾가 보이며 주황색과 갈색으로 표현하였다.

2) 카인(Cain)과 아벨(Abel)의 복식

카인과 아벨 사이에는 인격적인 차이가 있었다. 카인은 제사에서 차별받자 자신의 동생을 원수로 보고 증오심을 품은 악한 성격이었으나, 아벨은 의로운 성격이어서 마음이 곧고 생활을 경건히 하여 ‘의인 아벨’이라 불렸다. 이는 정해진 토지에 얽매여 사는 농부 카인과 이곳, 저곳을 유랑하는 유목민 아벨 사이의 성격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2장(folio)에서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카인이 매턱

(mattock)이라는 도구로 양치기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의 복식을 분석하면 카인은 파랑색 무릎길이의 튜닉에 허리에는 가는 끈 형태의 벨트를 매고 주황색 호즈를 착용하였고, 쓰러져 있는 아벨은 회색의 무릎길이의 튜닉위에 올리브색 맨틀을 입고 역시 주황색 호즈를 착용하고 있다.

라멕(Lamech)에게 살해되는 장면에서 카인의 복식은 갈색의 무릎길이의 튜닉에 녹색 호즈를 착용하고 있다.

3) 노아(Noah)의 복식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하느님이 인류를 위한 유예 기간을 선언하자 즉시 홍수를 피해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성품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의인이며,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방주를 준비하고 식량을 비축하는 일을 믿음으로 수행한 순종적인 인물이다.

노아의 복식은 2, 3장(folio)의 방주를 만드는 장면, 동물들과 방주에 탄 장면, 방주를 떠나는 장면, 제물을 바치는 장면,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방주를 만드는 장면에서의 노아는 앞 중심에 깊은 슬릿이 있는 무릎길이의 파랑색 튜닉을 착용하고 있으며, 앞자락을 허리끈에 걸어 올리고 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방주에 탄 노아는 갈색의 튜닉을 입었는데 창문의 크기상 길이는 추정해볼 수 없고 방주에서 내리는 노아의 주황색 튜닉은 발목길이의 튜닉이다. 또한, 제물을 받치는 노아의 튜닉은 소매끝 부분이 턱업 커프스(turn-up cuffs) 형태를 보이는 발목길이의 파랑색 튜닉으로 앞 중심에는 깊은 슬릿이 있어 한 자락을 허리끈에 걸어 올리고 있다.

맨틀은 걸과 안의 색이 다른 양식을 보이는데, 머리부터 덮고 있는 갈색의 맨틀은 안감이 흰색이고 다른 하나 역시 파랑색 맨틀의 안감에 흰색을 사용하고 있다.

같은 배경에서 일련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물의 복색이 바뀌는 것은 여러 명의 채색화가가 나누어 작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아브라함(Abraham)의 복식

10) John Lowden, 초기 그리스도교와 비잔틴 미술, 임산 역 (서울: 한길 아트, 2003), p. 427.

<표 1> 중심인물의 복식 특성

| 인물 | 복식 | 속옷 | 튜닉, 꼬뜨 | 시클라스 | 맨틀 | 호즈 | 기타 |
|-------------------|---|-------------|--|------|---|----------------------|--------------------------------------|
| 하느님 (God) |  | | 주황 4, 파랑 2, 갈색 2, 올리브색 | | 파랑 4 갈색 5, 파랑+흰색 | | 맨발 브로치 |
| 아벨 (Abel) |  | | 회색 | | 올리브색 | 주황 | |
| 카인 (Cain) |  | | 파랑, 갈색 | | | 주황, 녹색 | |
| 노아 (Noah) |  | | 파랑 3, 갈색, 주황 | | 파랑+흰색 갈색 | 주황, 흰색 | |
| 아브라함 (Abraham) |  | | 녹색 | 녹색 | 갈색+주황 | 체인 메일 쇼즈 | 파랑 코이프, 허버크 (hauberk) |
| 이삭 (Isaac) |  | | 주황, 올리브색, 노랑, 파랑 | | 파랑+흰색 빨강+흰색 | 녹색 | 머릿수건 |
| 롯 (Lot) |  | | 녹색 3 | | | | 흰색 코이프, 베레, 빨강+모피 쉬르꼬뜨 2 |
| 에서 (Esau) |  | | 녹색, 연갈색 | | 주황+ 흰색 | 파랑, 열은 빨강 | |
| 야곱 (Jacob) |  | 흰색 슈미즈 2 | 회색, 갈색 2, 올리브색 2, 녹색, 주황 2, 파랑 2 | | 파랑+흰색, 갈색+흰색, 파랑+모피 2 | 파랑 2, 주황 3, 녹색 | 후드 베레 3 |
| 요셉 (Joseph) |  | 흰색 슈미즈 | 회색+주황, 회색, 파랑+녹색, 파랑 4, 빨강+흰색, 빨강, 갈색+녹색 | | 주황+파랑 주황+갈색 빨강+파랑 빨강+흰색 파랑+모피 파랑+파랑 파랑+갈색 | 갈색 2 녹색 주황 | |

<표 1> 계속

| 인물 | 복식 | 속옷 | 튜닉, 꼬뜨 | 시클라스 | 맨틀 | 호즈 | 기타 |
|-------------------|---|----------|---|-----------|---|---|---------------------------------------|
| 벤자민 (Benjamin) |  | | 파랑 갈색 3 | | | 올리브색, 주황, 녹색 2 | |
| 모세 (Moses) |  | | 주황, 노랑, 파랑, 녹색 2, 갈색 2, 회색 3 | | 파랑+흰색 2, 녹색+노랑, 녹색+파랑, 녹색+주황 2, 갈색+주황, 갈색+파랑, 파랑+노랑, 파랑+주황 | 흰색, 노랑, 주황 3, 파랑, 녹색, 회색 | 브로치 8 |
| 아론 (Aron) |  | | 파랑 2, 주황, 회색 2, 갈색 | | 갈색+주황, 갈색+올리브, 갈색+흰색, 파랑+흰색 3 | 주황 2 | 브로치 2 |
| 여호수아 (Joshua) |  | | 주황 3 | | 파랑+연갈색 3 | 녹색 2 | 베레 3 |
| 기드온 (Gideon) |  | 흰색 브레 | 파랑+베이지, 녹색 2, 회색 | | 자주+주황, 갈색+올리브 | 녹색, 주황, 체인메일 호즈 | 코이프 2, 브로치, 허벅크, 기사 벨트 |
| 예브다 (Jephthab) |  | | 파랑 | 녹색 +주황 | | 흰색 체인메일 호즈 | 허벅크 |
| 삼손 (Samson) |  | | 주황 5, 주황+파랑 3, 갈색, 파랑+흰색 | | 녹색+ 흰색 5 | 파랑 2, 회색 4, 녹색 2, 주황 | 브로치 5 |
| 레위인 (Levite) |  | | 녹색, 연노랑, 흰색 3, 갈색, 올리브 | | 주황+흰색, 녹색+ 주황, 갈색+ 파랑 2, 파랑+흰색 | 주황 3 | 파랑 쉬르꼬뜨, 갈색쓰개, 브로치 3, 파우치 |
| 보아스 (Boaz) |  | | 녹색 4, 주황 | | 주황+파랑 2, 올리브색+파랑 | 파랑 2, 주황, 연노랑 | 빨강+파랑 쉬르꼬뜨, 갓모양의 쓰개 |

성서에서 히브리인으로 불린 최초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조상 때에 바빌로니아 동남 지방에 살던 셈(Semites)족이었는데, 하란(Haran) 지방에 살다가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였으며, 아브라함의 활동 시기는 기원전 2160~1991년으로 추정된다.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다가 하느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다. 100세에 마침내 언약의 후손 이삭을 얻었지만 기꺼이 하느님께 제물로 받치려는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인다.

3장(folio)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Isaac)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에서 넓은 소매가 있는 발목길이의 녹색 튜닉과 걸감이 갈색, 안감이 주황색인 맨틀을 가사의(袈裟衣)형태로 착용하고 있으며, 살렘왕 멜키세덱(Melchisedech)에게 은총을 받는 장면에서는 쇠사슬 갑옷인 허버크(hauberk)위에 녹색의 시클라스(cyclas), 기사벨트, 체인메일 쇼츠(chainmaille chausses), 파란색 코이프(coifs)를 착용하고 있다.

5) 이삭(Isaac)의 복식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며, 제물로 받쳐질 때 순순히 복종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여호와와 그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3장(folio)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제물로 받쳐지는 이삭은 발목길이의 올리브색 튜닉을 입고 있으며, 4장(folio)에서 이삭이 아들에서(Esau)에게 봉양을 받는 장면의 복식은 소매가 넓은 발목길이의 빨간색 튜닉과 흰색 안감이 대어진 파랑색 맨틀, 녹색 호즈, 머릿수건을 두른 모습과 타이트한 소매의 노란색 언더 튜닉 위에 소매가 넓은 파랑색 오버튜닉을 입고 흰색 안감이 대어진 빨간색 맨틀을 걸치고 있다.

이삭은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의식하며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성품을 갖고 있고, 개방적이며 때로는 충동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¹¹⁾. 이러한 성격은 그의 붉은 튜닉과 파랑색의 튜닉에서도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6) 롯(Lot)의 복식

롯은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의 아들이다. 3장(folio)에서 소돔(Sodom)이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롯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의 복식은 녹색의 겐비슨(gambeson)위에 갈색의 가죽제 보호복을 입고 빨간색 기사벨트, 박차가 장식된 체인메일 쇼츠, 흰색 코이프 처림이다. 또한, 소돔사람들이 천사를 만나기 위해 롯에게 요청하는 장면에서는 종아리 길이의 녹색 튜닉 위에 푸른색 모피로 안감을 대고 앞 중심에 깊은 슬릿과 행잉 슬리브가 달린 빨간색 쉬르고뜨(surcote)와 베레모 차림을 하고 있으며, 이는 4장(folio)에서 소돔을 떠날 때 롯의 복장과 같다.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본 롯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의 복식의 붉은 색도 그런 사랑을 표현해주는 듯하다.

7) 에서(Esau)의 복식

에서는 성질이 용맹하고 사상이 천박하며 들에서 사냥을 잘 하였다. 더욱이 아버지 이삭은 사냥고기를 좋아하여 에서를 사랑하였고 여성스런 야곱은 어머니에게 편애를 받았다. 4장(folio)에서 아버지 이삭에게 고기를 드리는 모습의 에서는 무릎길이의 연갈색 튜닉과 파랑색 호즈의 차림이고, 자신대신 축복을 받고 도망갔던 동생 야곱과 만나는 장면에서는 종아리길이의 녹색 튜닉과 흰색 안감을 댄 주황색 맨틀, 옅은 빨간색 호즈를 착용한 모습이다.

8) 야곱(Jacob)의 복식

출생시 몇 초 차이로 장자의 권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야곱은 하느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았는데¹²⁾, 그의 복식은 4, 5, 6, 7장(folio)에서 볼 수 있다.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도중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의 꿈을 꾸는 장면에서는 발목길이의 파랑색 튜닉과 연한 노랑색의 안을 댄 갈색 맨틀, 주황색 호즈의 차림이다.

11) 이관직,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p. 43.

12) 조신현, “구약성서에 나타난 복식과 그 상징성”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 6.

야곱은 20년간 외삼촌 라반(Lavan)의 가축을 보살피는데 이는 매우 근면하고 성실했음을 알 수 있으며, 라반의 딸 라헬(Rachel)과의 만나는 장면에서는 종아리길이의 파란색 튜닉과 빨간 후드의 차림이거나 녹색 종아리 길이의 튜닉에 연노랑색 안감을 댄 빨간 맨틀을 입고 있다. 사촌의 시기에 두려움을 느낀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 떠나자 라반이 추격해와 야곱과 협상하게 되는데, 야곱은 종아리길이의 올리브색 튜닉을 입고 있으며, 그 후 야복 강에서 하느님과 씨름하는 장면에서도 같은 복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형 에서와 만나는 장면에서는 종아리길이의 갈색 튜닉에 흰색 안을 댄 파랑색 맨틀과 파랑색 호즈의 차림이다.

세월이 흘러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었는데, 총애 받던 막내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노예상에게 팔리게 되고 양의 피가 묻혀진 요셉의 옷은 야곱에게 요셉의 죽음을 알리는 수단이 된다. 이 장면에서 야곱은 흰색 슈미즈 위에 V넥의 소매 넓은 회색 튜닉, 모피로 안을 댄 파란색 맨틀, 주황색 호즈, 녹색 베레의 모습이다.

해몽가로서 파라오의 인정을 받게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의 파라오 앞에 오게 된 아버지 야곱은 흰색 슈미즈 위에 넓은 소매의 주황색 튜닉을 덧입고 모피로 안을 댄 파랑색 맨틀, 주황색 호즈를 착용하거나 주황색 언더 튜닉 위에 넓은 소매의 녹색 오버튜닉을 입고 모피로 안을 댄 파랑색 맨틀과 주황색 호즈 차림이다.

죽음이 가까워진 야곱은 그의 아들 므낫세(Manasseh)와 에브라임(Ephraim)에게 축복하게 되는데, 야곱은 파란색 베레를 쓰고 바닥길이의 갈색 꼬뜨 위에 흰색의 안을 댄 파랑색 맨틀을 걸치고 임종의 순간에는 회색 튜닉을 입고 있다. 젊은 시절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노년에 이르러 기도와 복종의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9) 요셉(Joseph)

아브라함의 증손자이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은화 20냥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지만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받고 기근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켜 정착시킨다.

히브리인의 성서에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인 요셉을 위해 지어 입힌 채색 옷(varicolored tunic/a coat of many colours)”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창 37:3-4), 이 채색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임을 표명하고 있으며, 족장을 계승할 수 있는 ‘장자 상속권’을 상징한다. 장자가 아닌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다는 것은 족장의 계승자임을 암시하는 야곱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성경에서는 5, 6장(folio)에서 요셉의 복장을 볼 수 있다. 슈미즈 차림으로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옆에 벗겨진 그의 옷은 주황색으로 안을 댄 무릎길이의 회색 튜닉이며, 다른 장면에서 죽음의 증거로 야곱에게 보여진 그의 옷은 녹색으로 안을 댄 파랑색 튜닉인데 중심에 깊은 슬릿이 있다.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에서는 종아리길이의 파랑색 튜닉과 갈색 호즈의 차림이며, 고관의 아내의 고발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녹색 안감을 대고 중심에 깊은 슬릿이 있는 종아리 길이의 갈색 튜닉과 격자로 바느질선이 보이는 푸른색 안감을 댄 주황색 맨틀차림이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관리인으로서의 재능을 보였으며,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이집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여 명예로운 고관으로 임명된다. 이 장면에서는 파란색 발목길이 튜닉 위에 격자로 바느질선이 있는 푸른색으로 안을 댄 빨간색 맨틀 차림과 빨간색 종아리길이의 풍성한 꼬뜨 위에 격자로 바느질선이 있는 푸른색 안을 댄 파란색 맨틀을 입고 있다.

기근을 예견하고 식량 비축 운동을 벌이던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찾아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고위관리인 요셉은 파란색 튜닉 위에 흰색 안을 댄 빨간색 맨틀을 입고 지휘봉을 쥐고 있는 모습, 흰색 안을 댄 빨간색 종아리 길이 튜닉 위에 모피로 안을 댄 파란색 맨틀과 녹색 호즈를 착용한 모습, 파란색 종아리 길이의 튜닉 위에 격자로 바느질선이 있는 갈색으로 안을 댄 파란색 맨틀과 연갈색 호즈 차림, 회색의 발목길이 튜닉 위에 격자로 바느질선이 있는 갈색으로 안을 댄 주황색 맨틀과 주황색 호즈 차림으로 전체적으로 상류계급의 복식을 입고 있다.

10) 벤자민(Benjamin)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벤자민은 형들의 선의를 시험하기 위한 요셉의 요청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게 된다. 6장(folio)에 표현된 어린 벤자민은 무릎길이의 갈색 튜닉과 올리브색의 호즈를 착용하고 있으며, 요셉과 만나는 장면에서는 앞 중심에 깊은 슬릿이 있는 무릎길이의 파랑색 튜닉과 주황색 호즈를 입고 있다.

요셉과 포옹하는 장면에서 벤자민의 갈색 튜닉은 옆선에도 깊은 슬릿이 있고 그 사이로 녹색의 호즈가 보이며 연회장에서 종아리길이의 갈색 튜닉과 녹색 호즈 차림이다.

11) 모세(Moses)의 복식

모세는 B.C. 13세기경에 히브리인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시킨 지도자이며, 유대 전통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서 추앙받고 있다.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되어 왕자같은 생활을 하다가 사십세가 되던 해에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쳐 목동으로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느님이 불타는 숲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7장(folio)의 장면에서 모세는 발목길이의 주황색 튜닉 위에 흰색 안을 댄 파란색 맨틀을 입고 있는데, 맨틀은 브로치로 네크라인 중심에서 여며지고 있고, 발바닥이 없는 흰색 호즈 위에 짧은 양말 형태의 검정 슈즈를 신고 있다(그림 1). 하느님의 임무 수행을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는 노란색 튜닉 위에 연갈색 안을 댄 파랑색 맨틀을 걸치고 있다.



<그림 1> 모세의 호즈.

8장(folio)에서는 애굽에서 파라오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하느님께 받은 지팡이의 힘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다. 모세는 발목길이의 회색 튜닉을 입고 그 위에 주황색 안을 댄 녹색의 맨틀이나 주황색 안을 댄 파랑색 맨틀을 걸치고 둥근 형태의 브로치로 여몄다. 히브리인에게 지팡이는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용의 장신구였지만¹³⁾ 모세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인 것이다.

모세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인들을 뒤쫓아 오는 파라오의 군대를 익사하게 한 후 이스라엘인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하느님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모세는 의복뿐만 아니라 옷의 장식, 머리모양, 머리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규례를 정하여 지키도록 했다. 이러한 배경의 9장(folio)에서 모세는 녹색이나 갈색, 파랑색의 발목길이 튜닉 위에 다른 색으로 안을 댄 갈색, 녹색, 파랑색 맨틀을 입고 브로치로 여미고 있으며, 착용한 호즈는 파랑, 노랑, 녹색, 회색, 주황색으로 다양하다.

성경에 따르면 시나이 정상에서 신을 만난 다음부터 얼굴과 머리에 빛을 내뿜게 되었으며, 일반인을 대할 때는 너울을 뒤집어쓰고, 하느님 앞에서만 벗었다고 한다¹⁴⁾.

모세는 재능이 뛰어나고 이해력이 깊으며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성품은 녹색이나 갈색 같은 차분한 색상을 이용해 표현하고 있다.

12) 아론(Aron)의 복식

하느님께서 아론에게 복을 내려 품위있게 하고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혀 백성의 사제직을 주었다. 금색과 보라색, 자주색 실로 수를 놓은 어깨걸이와 가슴받이를 입었는데, 이 가슴받이는 진홍색 아마포에 금판을 붙이고 그 위에 값진 보석으로 장식한 것이었다. 또한, 터번 위에 금관을 씌워주셨는데 거기에는 인장이 새겨 있었다.

아론은 형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인들을 구해내는데 7, 8장(folio)에 표현된 그의 복장은 주황색 혹은 파랑, 회색, 갈색의 발목길이의 튜

13) F. H. Wight, *Manners and Customs of Bible Lands*, (Chicago: Moody Press, 1979), p. 100.

14) 레지스드브레, *100편의 명화로 읽는 구약*, 이화영 역 (서울: 마로니에 북스, 2006), p. 106.

닉 위에 맨틀은 착용하였다. 맨틀의 걸감은 녹색, 파랑, 갈색이며, 안감은 노랑, 주황, 파랑, 흰색, 주황색으로 배색하여 다양하였고, 목 중심에서 브로치로 여미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여미고 있다. 호즈의 색 또한 흰색, 노란색, 주황색, 파랑색, 녹색, 회색으로 다양하다.

13) 여호수아(Joshua)의 복식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 끝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 하느님이 약속하신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 모세가 죽은 후 하느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인들을 이끌 것과 율법을 지키는 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한다. 연이은 전승으로 여호수아의 명성이 높던 중 신앙기물을 흠친 아간이라는 이스라엘인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여호수아의 정교한 작전으로 다시 승리하게 되고 병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과 작별을 고한다.

10, 11장(folio)에서 표현된 여호수아의 복식은 주황색 앞 중심에 깊은 슬릿이 있는 발목 길이의 튜닉 위에 격자로 바느질선이 있는 연갈색 천으로 안을 댄 파란색 맨틀을 걸치고 녹색 호즈, 갈색 베레를 쓴 모습이다.

14) 기드온(Gideon)의 복식

하느님은 침략자, 미디안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겸손한 남자 기드온에게 임무를 맡긴다. 기드온은 바랄 신에게 바치는 아버지의 제단을 부수고 그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인들과 미디안족을 싸워 이긴다.

12장(folio)에서 표현된 일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베이지색으로 안을 댄 파란색 무릎길이의 튜닉을 앞 중심의 슬릿을 이용하여 양 갈래로 나누어 허리끈에 끼우고 있어, 안에 착용한 흰색의 브레와 허리끈에 매달린 녹색의 호즈가 잘 보이는 노동복의 형태이며, 머리에는 흰색 코이프를 쓰고 발에는 검정색의 짧은 양말 형태의 슈즈를 착용하고 있다.

13장(folio)에서 제단을 부수는 기드온은 녹색의 발목 길이 튜닉과 주황색으로 안을 댄 자주색 맨틀을 둥근 브로치로 여미고 있거나 올리브색으로 안을

댄 갈색 맨틀과 주황색 호즈 차림이다.

전쟁시의 모습은 머리에 흰색 코이프를 쓰고, 회색의 캄브슨 위에 허버크를 입고 기사벨트로 장식했으며, 다리는 체인메일 쇼즈로 덮여 있다.

15) 예브다(Jephthab)의 복식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새로이 선택된 사사 예브다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날 그의 집 앞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느님의 재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한다. 암몬족을 물리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딸이 춤을 추며 환영 나오고, 예브다는 그의 약속을 한탄하지만, 딸은 하느님에게 충실하라고 격려하며 희생된다.

13장(folio)에서 보이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예브다의 복장은 허버크와 체인메일 쇼즈 위에 주황색으로 안을 댄 녹색 시클라스(Cyclas)를 입고 기사벨트를 장식한 기사의 모습이고 딸을 희생시키는 장면에서는 파란색 무릎길이의 튜닉과 흰색 호즈, 검정 슈즈 차림이며, 앞 중심이 슬릿으로 벌어진 튜닉의 앞자락은 허리끈에 걸어 올려져 있다.

16) 삼손(Samson)의 복식

아기가 없던 이스라엘 부부는 천사의 계시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곧 삼손이다. 14장(folio)에서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는 어린 시절의 삼손의 복식은 주황색 무릎길이의 튜닉에 파랑색 호즈 차림이다.

이후 삼손은 부모의 뜻을 어기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선택했으나, 아내로 인해 블레셋인에게 원한을 갖게 되고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 꼬리에 횃불을 매단 후, 블레셋의 곡식들을 태운다. 추격하는 블레셋인들에게 잡혔다가 하느님의 힘으로 결박을 풀고 당나귀 턱뼈로 천 명의 블레셋 남자들을 죽인다. 필리스틴 사람들(Philistines)의 원한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는 주황색의 무릎길이 튜닉위에 흰색 안을 댄 녹색의 맨틀을 둥근 브로치로 여미고 회색의 호즈를 착용한 모습이다.

그 후, 삼손은 데리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블레셋 관리들은 데리라를 통해 삼손의 힘의 비결이 그의 긴 머리카락임을 밝혀 삼손이 잠든 사이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생포하게 된다. 감옥에서 삼손의 머

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블레셋인들의 종교 축제 때 삼손은 사원의 기둥을 무너뜨려 블레셋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15장(folio)에 표현된 필리스틴 사람들로 부터 탈출하는 장면과 데릴라에게 머리카락을 잘리는 장면에서 삼손의 튜닉은 파랑색으로 안을 댄 주황색이며 호즈의 색은 각기 녹색과 파랑색이다. 감옥에 갇힌 삼손은 흰색 안을 댄 무릎길이의 갈색의 튜닉에 녹색 호즈를 착용하고 목에는 죄인의 표시인 듯한 금속제 걸이를 하고 있다.

히브리 남성들은 바빌론 사람들처럼 길고 잘 손질한 술이 많은 곱슬머리를 자랑했고 좋아했다. 사사기 16장 13절에 의하면 삼손의 머리털은 직조할 때 위사에 섞어 짜도 될 만큼 길었고 일곱가닥으로 표현되었다. 삼손의 머리털은 힘의 원천으로서 더 큰 의미가 있지만 서원의 수행을 위해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는데 그의 머리가 삭발됨으로써 그의 서원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기로 서원한 신도는 일정한 서원 기간 동안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도록 두었다가 나중에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기 때문이다¹⁵⁾.

17) 레위인(Levite)의 복식

사사 없는 이스라엘이 더욱 타락하였던 때, 한 레위 사람이 그의 부인과 기브아(Gibeah)라는 도시에 서 숙박하였는데, 기브아 남자들이 그의 부인을 강제로 데려가 욕보이고 죽이자 레위 사람은 죽은 부인의 시체를 나눠 이스라엘의 12부족에 보내 기브아인의 잔악성을 알리게 되고 이스라엘 부족들은 그의 대가로 기브아 남자들을 죽인다.

15장(folio)에 보이는 여행 중이던 레위인의 복식은 밀짚모자 같은 진한 갈색의 모자를 쓰고 발목길이의 녹색 튜닉을 입고 흰색 안을 댄 주황색 맨틀을 둥근 브로치로 여미고 있으며, 사다리꼴의 작은 흰색의 가방을 메고 있다. 실내서는 발목길이 흰색 튜닉을 입고 파랑색으로 안을 댄 갈색 맨틀이나 흰색으로 안을 댄 파랑색 맨틀을 두른 모습이다.

16장(folio)에서 죽은 부인을 실고 집으로 돌아와 부인을 토막내는 레위인은 갈색 베레모를 머리에 쓰



〈그림 2, 3〉 행잉슬리브의 쉬르꼬뜨 착용법.

고 흰색 언더 튜닉 위에 올리브색 오버튜닉을 입고 행잉 슬리브가 있는 파랑색 쉬르꼬뜨를 덧입고 주황색 호즈를 착용하고 있다(그림 2). 〈그림 3〉은 소매에 팔을 끼워 착용한 쉬르꼬뜨의 모습이다.

히브리인의 성경에 따르면 낯선 사람을 보면 얼굴을 가렸지만 베일을 쓰는 것이 엄격히 강요되지는 않은 듯하며, 과부는 베일을 벗었으며 창녀는 얼굴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¹⁶⁾. 여행 중이던 레위인의 부인은 중세의 전형적인 베일을 쓰고 있다.

18) 보아스(Boaz)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Naomi)는 자부 룯(Rute)과 함께 가을걷이가 시작될 무렵 고향 베들레헴(Bethlehem)에 돌아왔다.

모세의 율법에는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밭에 곡식을 벨 때 얼마쯤 버려 두며, 감나무를 떼 후에 가지에 남은 것을 살피지 말며, 포도를 딴 후에도 그 남은 것을 따지 말 것을 명하고 있다.

과부인 룯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인 보리이삭을 줍기 위해 밭에 나갔다가 친족인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식사자리에 초대받았는데 이는 그 집안의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이며, 한 식구나 다름없다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17장(folio)에 표현된 베들레헴의 대지주 보아스의 복식은 갈색의 밀짚모자를 쓰고 녹색의 튜닉 위에 파랑색 안을 댄 주황색 맨틀, 파랑 호즈 차림이며, 처

15) 박찬부, “구약성서에 나타난 히브리인의 복식,” 복식 36권 10호 (1986), p. 66.

16) 박요기, “김인숙, 주변민족의 복식을 통해서 본 히브리인의 복식형태,” 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5권 1호 (2001), p. 63.

음 룯을 보게 되고 룯과의 식사 장면에서는 턱업 커프스 형식의 소매가 달린 주황색 튜닉과 파랑 호즈, 후드 차림이다.

히브리인의 성경에서 과부는 과부의 의복으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었으며, 상을 당하면 입고 있던 자신의 옷을 찢고, 상복을 허리에 둘러서 자신의 극한 슬픔을 표시했다.

18장(folio)에서 과부 룯이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서 굴종하는 장면에서는 녹색 튜닉의 깊은 슬릿 사이로 주황색 호즈가 드러나고 파란색 안을 댄 올리브색 맨틀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외에는 녹색의 튜닉 위에 격자로 바느질선이 있는 파란색 천으로 안을 대고 행잉 슬리브가 달린 빨간색 쉬르꼬뜨를 입거나 파란색 안을 댄 주황색 맨틀을 걸치고, 머리에는 팜팜 모양의 장식이 정수리에 달린 갓 모양의 쓰개를 쓴 모습을 볼 수 있다.

2. 기독교의 색채상징

회화에 있어서 색채의 상징적 도입은 그리스도교 시대가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당시에는 성스러운 빛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 황금색 배경, 후광, 기하학적인 별 모양 등이 사물의 광채 현상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그리스도교의 상징 체계가 색채 속에 침투하여 색채는 일련의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¹⁷⁾.

초기 교회시대부터 상징적 색채를 사용하였지만, 색의 상징성에 관한 일반적 관례나 규정이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중세인들에 의해 색채의 상징성에 대한 이론과 체계가 확립되어 오랜 전통과 관습에 근거하여 각 색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색채의 상징성에 대한 질서와 규칙을 세웠던 것이다¹⁸⁾.

비잔틴의 영향 아래 12세기 말에는 여러 색을 전례(典禮)에 사용하도록 규정이 확정되어 흰색은 순결, 파랑색은 신성, 빨강색은 신의 사랑, 심홍색은 존

귀, 노랑색은 풍요, 금색은 덕, 초록색은 영원한 청춘, 자주색은 겸양 등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¹⁹⁾.

기독교에서 빨강과 파랑, 녹색은 삼위일체의 색이다. 하지만 파랑은 거의 동정녀 마리아, 빨강은 예수, 자주색은 성부(聖父), 녹색은 성령(聖靈)을 상징한다²⁰⁾.

성경에서 **흰색**은 많은 경우에 죄진 인간을 깨끗이 하기 위한 비유로 사용되었다. 죄사함을 받은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를 눈이나 깨끗한 양털과 같이 흰 것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흰색은 정결함, 죄가 없는 상태, 믿음으로 죄를 사함 받음 등을 상징한다.

또한 흰색은 신의 색이다. 성령은 하얀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나며 그리스도는 흰 양이다. 천사들도 흰 옷을 입고 하얀 날개를 달고 있다. 별등의 찬란함과 성모마리아의 순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빛, 영광, 결백, 승리, 환희 등을 상징하며, 축일의 환희가 충분히 표현되어야 할 전례에 항상 흰색을 사용한다.

빨강은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색으로 성부의 색이라고 하나 예수의 색이라 해도 무관할 것이며, 중세 말기의 회화 작품 중에는 마리아가 세속적인 배경에서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그림도 많지만 빨강은 믿음의 증거로서 순교자가 쏟은 피를 상징하여 순교자의 축일이나 그 기념일에 사용되며, 작렬함과 사랑을 나타낸다²¹⁾.

한편, 오랜 역사를 통해 성경에서는 죄를 ‘진홍색 처럼 붉은 색’으로 비유하여 죄의 의미를 붉은 빛으로 상징화했다. 그리고 중세에 와서도 빨간 망토는 사치스러움을 뜻하거나, 어떤 제도를 위배했다는 의미로 전달되었다²²⁾.

여성적인 **파랑**은 조용하고 수동적이며 내향적이다.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색으로 상징학에서는 물을 나타내는데, 물 역시 여성을 상징한다. 파랑은 기독교 문화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여성, 즉 마리아를 상징하는 색이다. 마리아의 파란 망토는 하늘만큼이나 넓어서 경건한 신자들을 모두 덮어 보호해 주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특성을 나타내준다.

17) 안향신, “현대복식에 표현된 색채상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12.

18) 김내현,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직물의 상징문양과 색채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 67.

19) 오춘자, “그리스도교 전례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2권 3/4호 (1974), pp. 751-752.

20) 안혜정, *Op. cit.*, p. 46.

21) 안향신, *Op. cit.*, p. 17.

22) Rona Gofften, *Titian's Woma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97), p. 171.

한편, 파란색이 거룩한 장소와 성직자의 예복 제사 의식에 많이 쓰인 것은 신성과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하느님을 묘사할 때 그 배경색으로 사용되었다.

녹색은 나뭇잎의 싹틈, 식물의 성장, 활짝 핀 생명의 희열과 열매의 희망을 상징하여 자연의 상징이며 영생의 희구를 나타내는 중간색이다²³⁾.

성령은 하얀 비둘기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이때의 배경은 주로 녹색을 사용했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녹색은 사도들을 가리키는 색이 되었다. 이 녹색은 지혜와 사제 정신이 인도하는 도덕과 법의 기독교 신앙 본성의 실천을 지향하는 삶을 뜻한다.

자주색은 장엄하고 호화로우며 풍부한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대부터 서구에서는 왕의 복색이었다. 자주색은 빨강색의 정열적이고 적극적인 성격과 파랑색의 이지적이고 침착한 성격이 혼합되어 복합적이며 고귀한 느낌을 준다. 또한, 자주색은 이 색 자체가 그다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 회개를 표시하므로 교회에서는 회개, 고행, 참회, 금식을 의미한다.

교회는 세속적인 권력의 색인 자주색을 영원과 정의의 색으로 해석함으로써 권력을 추구하면서도 신의 겸손한 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모순을 해결했다.

검정색은 모두 무채색 중에서 가장 명도가 낮은 색으로 가장 무겁고 엄숙하며 심원한 깊이를 느끼게 하는 반면 압박감과 공포, 사망을 연상시키는 색이기도 하다. 따라서 죽음과 슬픔, 고난을 상징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슬퍼하는 날과 장례식 때 사용되었다²⁴⁾.

검정색은 줄곧 지옥계의 이교도적 표시일 뿐만 아니라 영적 파멸의 기호였다. 결국 부정적인 것이며, 투쟁하는 교회의 수확과 결실의 초록빛 풍요에 비해 승리하는 교회에 맞선 영원한 천벌의 색이며 죽음을 상징한다.

황금은 그 아름다움과 희소성 때문에 많은 문화권에서 귀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또 그것은 흔히 사회학적, 종교적 중요성 그리고 권력과 연관되고 있고 금색 또한 부유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미술에서는 흔히 빛을 상징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특히 작가의 묘사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시각적 양식에서 그러하다.

그리스도교에서 노랑색의 사용을 피하는 이유는 배반자 유다의 의복을 표현한 색이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교의 보급 이래 구미(歐美)에서는 최하의 색이 되었다²⁵⁾.

이렇게 색은 중세 회화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다른 색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다. 또한,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무엇을 상징하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와 위치가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직접적인 반응에 따라서 새롭게도 생성된다.

따라서 색채상징은 의미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고 사회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종교와 연관된 색채상징은 색채상징 중에서도 의미추구 기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마카이요프스키 성경> 중심인물의 색채상징의 의미는 <표 2>로 구성하였다.

IV. 결 론

상징의 사용은 드러난 대상의 느낌과 그것이 함축하는 이념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기독교 미술이 상징적인 성향을 지니는 근원적인 이유는 그것이 이미 그 자체로 상징적 속성을 지닌 종교와 관련되어 있음에 기인한다.

1. <마카이요프스키 성경>의 그림들은 이스라엘 성서로서의 배경이 아니라 13세기 프랑스 배경으로 사물, 의복,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 중세 복식, 무기 및 갑옷에 관하여 귀중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허벅(hauberk)에 붙은 체인메일의 손가락 장갑에 관한 묘사는 이것의 사용 시기가 1300년대 후반이라는 일부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그림 4).

2. 중심인물의 복식 중 속옷으로는 흰색의 슈미즈와 브레, 기본 복식으로는 무릎길로부터 바닥

23) 파바비렌, *색채심리*, 김화중 역 (서울: 동국출판사, 1989), p. 236.

24) 김현, “전례복에 표현된 미의식에 관한 연구,” *충주사대논문집* 20집(1982), p. 205.

25) 塚田 敢, *色彩美學*, (東京: 紀伊國屋書店, 1985), p. 135.

<표 2> 중심인물의 색채상징

| 인물 | 중심 색상 | 상징 |
|-----|------------|---|
| 하느님 | 주황, 파랑 | 노랑과 빨강의 혼합색인 주황은 권력과 사랑의 의미이며, 파랑은 하늘나라를 상징한다. |
| 노아 | 파랑 | 조용하고 수동적인 파랑색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성격을 반영한다. |
| 야곱 | 주황, 파랑 | 가족애가 많고 성실한 야곱은 하느님의 사랑에 복종하는 겸손함으로 주황과 파랑으로 표현되었다. |
| 모세 | 녹색, 갈색, 회색 | 지혜롭고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녹색으로 표현되고 차분한 성품은 갈색과 회색의 중간톤으로 표현되었다. |
| 아론 | 파랑, 회색 |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인을 구하는 실천자 아론은 거룩한 신의 색 파랑과 회색으로 표현하였다. |
| 삼손 | 주황 | 정열의 빨강과 노랑의 혼색 주황은 삼손의 강하고 즉흥적인 성격을 표현하기에 적당하다. |
| 보아스 | 녹색 | 생명과 자연에 관련된 녹색은 대지주 보아스를 표현하기에 좋은 색상이다. |

길이까지 다양한 길이의 튜닉 혹은 꼬뜨를 입고, 다른 색으로 안을 댄 맨틀(mantle)과 다양한 색상의 호즈를 착용했다. 전쟁 장면에서는 체인메일로 제작된 허벅(hauberk)과 그 위에 걸친 긴 슬릿이 있는 시클라스(cyclas), 배럴헬멧이나 노르만 헬멧, 스틸 스쿨 캡 등이 보인다. 머리쓰개로는 남성의 경우 코이프(coifs)가 가장 많이 보이고 베레, 갓모양의 모자, 밀짚모자 형태 등 다양하며, 여성은 베일과 머리끈을 이용한 장식, 네트로 머리 전체를 감싸는 형식 등이 보인다(그림 5).

- 중세복식의 다양한 착장방식과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튜닉의 길이는 나이가 어리거나 노동을 표현하는 경우 무릎길이로 짧았으며, 신분이 높을수록 바닥에 끌리는 것을 착용하고 있어 신분에 따른 복식의 구분을 보여준다. 또한, 복식의 자락을 허리끈에 걸어 올려 끼운 모습에서 길거나 거추장스러운 자락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알 수 있다(그림 6).

맨틀의 경우도 나이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착용하고 있으며, 착장방식은 양쪽 어깨에 걸치거나, 오른쪽 어깨를 노출하는 방식, 왼쪽 어깨를 노출하는 방식, 목 주위를 감싸 뒤로 넘기는 방식, 머리부터 써서 늘어뜨리는 방식 등 다양하며, 여밈 위치도 오른쪽 목으로 치우치게 여미



<그림 4> 체인메일 손가락 장갑.



<그림 5> 베일과 브로치.



<그림 6> 튜닉의 착장.

거나 등근 브로치를 이용하여 중심에서 여몄다. 행잉 슬리브가 붙어 있는 쉬르꼬뜨(surcote)는 소매에 팔을 끼워 착용한 경우와 팔을 끼우지 않고 늘어뜨려 착용하는 두 가지 착장 상태를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중세 그림 성경에서 복식은 당시 시대적 배경에 성경의 내용을 투사할 수 있는 상징적인 소재로 사용되었고, 색은 상징의 중요한 요소로서 무엇을 상징하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새롭게 생성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쓰인 책이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복식은 성경이 쓰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복식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이미지 또한 심오한 것이므로 성서에 표현된 복식은 기독교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다.
5. 상징으로 쓰이는 색채는 여러 가지 연상 작용을 동반하며, 이러한 작용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고정화되어 각각의 감정을 갖게 된다. 그림 성경의 복식에서 많이 사용된 색은 주황색, 파랑색, 녹색, 갈색의 순이었으며, 흰색과 검정색 같은 무채색의 사용은 속옷과 신발같이 아주 부분적인 곳에만 사용되어 전반적으로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상으로 화려하게 채색된 복식을 볼 수 있다.

중심인물의 색채상징 중에서 하나님의 색상으로 표현된 파랑은 노아와 아론 등 하나님께 순종적인 인물의 묘사에 사용되었으며, 가족애와 관련된 야곱과 삼손의 경우는 따뜻한 느낌의 주황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종교적 색채상징은 다른 종교상징들과 함께 신성에 대한 성스러우면서도 인간의 사회적 세계와 관계된 개념을 전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그림 성경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종교에 담긴 진리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졌지만, 당시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한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김내현 (1983).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직물의 상징문양과 색채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령 (1997). “삽화를 통해 다시 읽는 Black.”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영 (2001). “기독교미술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 (1982). “전례복에 표현된 미의식에 관한 연구.” 충주사대논문집 20집.
 레지스드브레 (2006). *100편의 명화로 읽는 구약*. 이화영 역. 서울: 마로니에 북스.
 박요기, 김인숙 (2001). “주변민족의 복식을 통해서 본 히브리인의 복식형태.” *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5권 1호. pp. 59-70.
 박찬부 (1986). “구약성서에 나타난 히브리인의 복식.” *복식* 36권 10호. pp. 63-80.
 안향신 (1993). “현대복식에 표현된 색채상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혜정 (2005). “최후의 만찬에 표현된 복식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에케하르트 캐멀링 편. (1997).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이한순 외 역. 서울: 사계절.
 오춘자 (1974). “그리스도교 전례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2권 3/4호.
 웬디 베케트 (2002). *웬디수녀의 그림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김현우 역. 서울: 예담.
 이관직 (2006).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생명의 말씀사.
 조신현 (1985). “구약성서에 나타난 복식과 그 상징성.”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파바비렌 (1989). *색채심리*. 김화중 역. 서울: 동국출판사.
 필립, B. 맥스 (1988).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월간디자인 역. 서울: 월간 디자인.
 塚田 敢 (1985). *色彩美學*. 東京: 紀伊國屋書店.
 Gofften, Rona (1997). *Titian's Woma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Lowden, John (2003). *초기 그리스도교와 비잔틴 미술*. 임산 역. 서울: 한길 아트.
 Shaver-Crandell, Anne (1991). *중세의 미술*. 김수경 역. 서울: 예경 산업사.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1979). Vol. 2.
 Wight, F. H. (1979). *Manners of Customs of Bible Lands*. Chicago: Moody Press.
<http://www.medievaltymes.com>